傳統韓藥으로 韓方姙娠
- 애절한 불임부부(64만쌍) -

한약업사 李 東 洙

1960년도만 해도 세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이더니 각 나라마다 산아제한 피임 유산금지법을 고쳐 해제하고 인구 억제정책을 고수해 왔다. 아들 딸 구분말고 둘만 낳기 운동이 귓전에 선하다.

그러나 산업과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국가가 활기를 띠고 부흥함에 5천말달러 수출이 이루어지더니 어느새 1억불, 5억불, 10억불, 50억불, 100억불 지금은 1,000억불 이상 수출이 된다니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요청되어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하니 이웃나라 중국에서 우리 교포들 수십만명을 데려다 쓰고서도 모자라 필리핀, 태국, 기타 수십개국에서 수십만명을 쓰고 있다.

그에 따른 노임도 달러로 나가리라 이에 따른 노임이 달러로 송금하기 때문에 수백억 달러가 나가고 더구나 세계 관광여행, 관광상품여행, 골프여행, 밀수관광, 섹스관광, 정력보신관광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수백억달러가 상실하기 때문에 해마다 외채가 늘어나는 추세로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소실된 셈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10년만 더 나아간다면 산업인력이 마비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인구증가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부부가 64만쌍이라고 합니다.

불임부부는 대개 일찍 아기를 갖지 말고 좀 더 기반을 잡은 후 갖자 등등으

로 두 번 세 번 유산을 하는 관계로 유산을 두 번 세 번 하면 어린아이를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를 갖고 싶으나 도무지 생기지 않아 부부는 고민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옛적에는 어린애가 없으면 안생기면 이혼을 하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장가를 가고 다른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는 목을 메어 죽기도 하고 잿물 먹고 자살도 하고 물에 빠져 투신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어린애가 없어도 그대로 살자고 들합니다.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위와 같이 유산수술을 두 세 번한 후에는 좀채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관계를 모르며 시초부터 산아정책이 속수무책이였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자궁외 임신 외는 거의가 자궁수술이 없다시피 합니다. 유산수술이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애를 가지고 싶지 않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나팔관 양쪽을 막아버립니다. 또 아기를 갖고 싶으면 터버립니다. 두 번 세 번 유산하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7%로 떨어트린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90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65만명이었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50만명으로 23% 줄었다. 한편 90년 25만쌍에 달했던 불임부부는 64만쌍으로 156% 증가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불임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불임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에게 걸림돌은 턱없는 치료비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보통 200만원, 400만원선 한번에 성공할 확률은 20%에 못미치고 수채 반복한다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갈때마다 진료비는 10만원에서 30만원선 본인 한약방에서는 500세대에 1,000여명의 아기를 태어나게 했지만 녹용 두 서너재 값 시험관 아기 수술 10분의 1에 불과하며,단 녹용 두재 값으로도 임신이 비일비재하다.

올해 초 보건사회연구원이 불임여성 4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5명중 4명꼴로 돈 때문에 불임치료가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

델란드 등 선진국들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불임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 해온 사회풍조도 불임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다.

불임부부는 저 집은 아이도 못 낳는다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조차 얻기 힘들다. 국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산부인과나 한약방에서 불임부부 상담을 실시하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야기는 우리나라도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세계 최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임부부들에게 허공 속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선진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절대로 나팔관이 막혀도 수술하지 않는다. 오로지 약물치료와 통풍치료가 으뜸이라 10명중 3명이 10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임신이 가능하다. 왜 그러면 나팔관수술을 하지 않을까?

나팔관수술은 막 다른 경지에서 하는것이고 선진국에서도 수술자 100명중 2, 3명밖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나팔관수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약물치료, 통풍치료를 하면 10년간 100명을 치료할 때 약 30명이 임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숨죽여 사는 불임부부들은 인터넷에 둥지를 틀고 서로를 위로할 수 밖에 없어 3년전 문을 연 아기를 기다리는 모임. 아기모 www.agimo.org는 불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여성 8,000여명이 모인 곳이다. 어디에도 호소 할 데 없는 불임자들의 애절한 외침이 곳곳에 스며있다. 아기모 운영자 백은희여사(35세)는 출산장려정책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부가 정작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불임부부 64만쌍이 조직을 결성해 투쟁에 나서야만 사회적 관심사로 여기고 지원을 약속할 것인지 폭발직전에 있다.

프랑스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시험관아기 시술까지 횟수 비용에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필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국.공립

병원에 한해 3회까지 시험관아기(채외수)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독일은 40세 미만 불임환자에 대해 4차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전체 불임치료의 70%까지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03년부터 한 아이 더 낳기에 일본도 10만앤씩의 약값을 보조하고 있으며, 선진국 미국도 1인당 최저 1만5천달러가지 보험혜택을 주고 있으며, 호주는 시험관아기 시술횟수를 무제한으로 바뀌었다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외국에서 산업인력을 수십만명을 쓰고 수백억 달러를 흘려 보내고도 인구정책은 속수무책이다. 불임자 보험혜택은 고작 10만원이라니 불임부부 정책은 후진국중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우리국민이 과거 22년간 4대를 손수 위정자를 뽑았지만 잘못 선택하여 나라꼴이 경제가 수렁에 빠져 온 백성이 도탄 등에 허우적거리니 외채가 불어나고 불임자는 더욱 안중에도 없고 불임부부는 64만쌍을 양산하였다.

이에 당국은 적극적인 새로운 보건정책을 새로 계획하여 개인의 문제가 사회전체의 문제이오니 한쌍의 불임부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산업인력이 모자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일하는 일이 없이 자급자족하여 풍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64만쌍의 불임부부가 새로 아기를 낳게 되면 기왕이면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아기만을 출생하게 하는 비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등국가 일등국민이 되어 세계에 빛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단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 발전의 초석이될 것이오니 벙어리냉가슴을 앓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한을 풀어 주고 세계제패의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기 2003년 월 일

(영천당 한약방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467-1 ☎ 061)867-2878)